

결혼의 계절 ... 전세가 '깡충' 이사용품 '불티'

광주 매물 부족으로 아파트 전세가 1주새 0.25% 올라

집 구하려는 신혼부부 늘어 수납함·매트리스 판매 급증

결혼 시즌과 이사철이 겹치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치가 뛰고 있다. 또 집을 옮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용품 매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가을에 결혼식이 많아 집을 구해 이사를 하는 신혼부부가 많은 탓이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12일)대비 0.19%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폭인 0.13%를 살짝 웃돌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0.38%)와 대구(0.26%), 서울(0.22%), 광주 부산(0.16%), 경기

(0.15%) 순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반면, 충북(-0.03%), 충남(-0.03%)은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또 광주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 기간 광주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25% 올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0.19%)을 앞섰다. 지역별로도 서울(0.32%)과 경기(0.25%), 광주(0.25%), 제주(0.23%), 대구(0.21%), 인천(0.20%) 순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유일하게 전세가격이 하락한 곳은 전남(-0.01%)

이었다.

이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하고, 매물 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매매·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전세난과 결혼시즌이 겹쳤기 때문이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9~10월 매출 분석 결과, 수납함·정리함·매트리스·가구 등 이사관련 인테리어 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때 집을 옮기는 데 필요한 플라스틱 상자 등 수납함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매출이 27.7% 늘었고, 여러 가지 소품을 보기 좋게 담을 수 있는 정리함 매출도 90.9% 증가했다.

이 기간 침대 매트리스는 194%, 매트리스를 놓을 수 있는 침대 프레임은 44.2% 늘었다. 소파·식탁·서랍장 매출도 79.1%, 60.1%,

16.2% 뛰었다.

이런 이사용품의 매출 증가는 전세난 때문에 이사를 하는 가구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마트는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격 가을철인 10월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웨딩컨설팅 '듀오 웨드'(www.duowed.com)가 2002년 창립 이래 올해 8월까지 축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식이 가장 많은 달은 10월(13.2%)이었다고 25일 밝혔다.

11월이 12.5%로 뒤를 따랐고, 5월(11.7%), 4월(10.0%), 12월(10.0%) 등의 순이었다. 연간 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결혼비중이 3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오광록 기자 bigkim@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美 FOMC회의 금리동결 예상

관망심리속에 좁은 박스권 등락

지난 주(19일~23일)는 글로벌 경기 부진 속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반영됐다. 지난 19일 중국 GDP 6.9% 발표, 전망치인 6.8%를 다소 상회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성장률의 최저치를 기록, 경기지표인 9월 산업생산은 5.7%를 기록함으로 전월치 6.1% 전망치 6.0%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이미 낮아진 기대치로, 증시 급락은 없었고, 5중 전회 전후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로 주식시장은 다소 강세를 보였다. 현재차, 포스코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다.

이번 주(26일~30일)의 KOSPI는 2000~2050선이 예상된다. 상승요인으로는 미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미 GDP발표 부진으로 금리인상시기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 부채한도 협상 난항 예상, 글로벌 제조업 둔화 우려된다.

미 FOMC 회의(27~28일)는 동결이 예상되고 차후 금리인상 시기는 곧 다가올 것이라는 시장반응에 따라 관망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Bloomberg에서 서베이하고 있는 FOMC의 미 금리인상 확률은 10월 6%, 12월 32%, 2016년 1월 40%, 2016년 3월 54%이다. 현재 컨센서스로 보면 미국 금리인상은 2016년 3월이나 돼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엘런 의장은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했으나, 금융시장은 Fed의 첫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OECD 선형지수가 19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과거 금리인상기와 글로벌 경기 상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절벽 가능성 등 11월에는 미 국회에서 노이즈가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는 등 이미 금리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미 FOMC 회의 이후 글로벌 증시는 안도감에 따른 상승보다는 미 뉘른은 속제(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 등)에 관심이 옮겨가며 부진한 흐름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재무부가 이미 11월 3일에 부채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FOMC에 따른 관망심리로 좁은 박스권 등락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주요 IT하드웨어 업종들의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을 실적에 따른 종목별 플레이로 한정하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



윤자웅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한국인 식지 않은 '커피 사랑'

올 수입량 10만2500t

전년보다 3.2%↑ 최대

식지 않은 한국인의 커피 사랑 속에 국내에 수입된 커피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까지 원두 등 커피(조제품 제외) 수입총량은 약 10만2500t(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9400t)보다 3.2% 늘었다.

특히 지난해 커피 수입증량이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내에 들어온 커피 규모는 2연 연속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이다.

원산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수입된 커피가 약 2만600t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2만400t)과 콜롬비아(1만6000t)·페루(6400t)·온두라스(5800t) 등 중남미 국가가 그 뒤를 이

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에서 들어온 커피가 전체 수입량의 24.8%, 브라질에서 수입된 커피가 16.8%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베트남과 브라질산 커피의 비중이 각각 20.1%와 19.9%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올해 수입된 커피는 약 4억1600만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8200만달러)보다 8.9% 늘었다.

연말까지 커피 수입액은 6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두 가격이 2012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생두 값이 비쌌던 2011년(6억1천900만달러)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의 커피가 등장하고 있어 커피 수입량이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중·이노작용에 좋은 동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대 동과(冬瓜)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동과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돼 있어 부중과 이노작용에 좋다. <롯데백화점 제공>

공정무역 커피 알리는 음악회 열린다

아시안피스크피, 내달 14일 서구문화센터

공정무역 커피를 알리는 음악회가 열린다. 동티모르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안피스크피'는 오는 11월 14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공정무역 음악회'를 연다.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청소년의 꿈과 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

회에는 돌레소리합창단과 영 어울림동아리가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합창단 공연 및 색소폰, 클라리넷 중주 연주도 결집된다.

또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판매하며 공정무역커피도 홍보한다. 문의 062-654-432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육아도 공동으로 ... 유아용품 구매 아빠 급증

최근 유아용품을 사는 20~30대 젊은 아빠들이 늘었다. 남성 육아 프로그램의 영향 등으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 같은 아빠인 '프렌디(Friend+Daddy)'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쇼핑사이트 11번가(www.11st.co.kr)에 따르면 올해(1월 1일~10월 21일) 출산 유아제품 카테고리 남성 구매자 비중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산 유아제품 구매 남성 비중이 33%였던 것과 비교하면 10% 이상 오른 수치다.

남성고객 대상 출산 유아 제품 매출액도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유아용품을 구입한 남성 고객 중 20~30대의 비중이 74%로 높게 나타나 젊은 아빠들이 유아용품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매번! 500m

大山프리모가발

당신의 광경/젊음의 광경!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